

News

한은 "신흥국,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 과정에서 금융불안 주의"

연합뉴스

한은, "코로나19 확산, 대응 과정에서 신흥국의 기초 경제 여건과 재정 상황이 악화함에 따라 향후 금융 불안 나타나면 대외 건전성 악화 우려 지금보다 커질 수 있다" "상대적으로 물가 수준이 높은 데다 과거 고(高)인플레이션 이력이 있는 신흥국은 식량 부족 등 공급상 어려움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다"

기준금리 잇단 인하... 개인신용대출도 '1%대 금리 시대' 돌입

파이낸셜뉴스

한은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연 0.5%로 인하하면서 시중은행 개인신용대출 금리도 1%대 시대가 본격화... 일부 시중은행 개인신용대출 최저금리는 1%대 중반 시중은행 한 관계자,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분을 반영해 조만간 예금금리와 함께 대출금리도 본격 조정할 예정"

기준금리 인하 불확실성 해소...속으로 미소짓는 시중은행

데일리안

당장 금리인하에 취약한 은행권은 순이자마진(NIM)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향후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 시중은행 관계자, "그동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은행 간에 눈치보기를 하면서 어느정도 시차를 두고 금리인하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럴 분위기가 아니다"

부동자금 5개월 연속 늘어 1,100조

데일리안

한은과 금투협회에 따르면,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MMF, CMA 등 부동자금의 규모는 지난 3월 말 현재 1,106조 3,380억원 이는 역대 최대로 지난해 11월 부동자금이 1,000조원을 넘어선 뒤 3월까지 5개월 연속 매달 증가...금리 인하와 함께 갈 곳 잃은 부동자금의 증가 속도

금감원, 대형 GA '30억 과태료·영업정지' 철폐...시장교란 주범 지목

이투데이

금감원, 대형 보험대리점(GA) '리더스금융판매'에 30억 원대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설계사 전원에게는 2개월간 생명보험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설계사가 8000명에 육박하는 대형 GA에 중징계를 내린 건 사실상 첫 사례로 GA업체에 대한 금감원의 '무관용 원칙'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

중고차 상태점검 보험료 부담 6월부터 최대 25% 인하

연합뉴스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가 실제 차량 상태와 달리 작성됐을 때 구매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작년 6월부터 의무화된 책임보험... 반대로 차량 실제 상태가 기록부와 다른 사례가 많아 책임보험 손해율이 높게 나타난 사업자는 이론적으로 보험료가 50%까지 할증

금융당국, 미래에셋 발행어음업 심사 재개...곧 자료보완 요구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을 피한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단기금융 업무) 인가 심사를 사실상 재개...빠르면 한두달 내에도 결론이 날 수도... 금융당국 관계자, "공정위 조사 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에 심사 중단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본다"며 "공정위 발표 뒤 미래에셋과 절차를 두고 이미 연락을 주고받는 상태"

ELS 발행 감소에도 '해외지수'쏠림 여전

뉴스토마토

5월 ELS 발행 금액은 1조3,201억원(5월29일 기준)으로, 지난 2018년 12월(2조8,373억원) 이후 가장 작아... 문제는 현재 발행되는 ELS의 기초자산 대부분이 해외주요지수에 쏠려있다는 점...진행중인 106건의 ELS상품 중 해외주가지수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은 73%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